

옛 문헌이나 악보가 값지고 귀하다는 것은 단순히 연대가 오래되었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책과 그 악보에 담긴 내용이 그 당시의 실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체계있게 잘 정리하였느냐 하는 점이 값진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한 관점에서 조선 중기의 「琴瑟字譜」 「梁琴新譜」와 조선 말기의 「俗樂源譜」 「遊藝志」 「愚軒琴譜」 「三竹琴譜」는 시대적인 변천의 연계성과 내용에 있어서 허다한 옛 악보 중에서 중심적인 구실을 할 수 있는 악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중에서 「우현금보」는 철종 12년(1861) 무렵의 악보로 고증된다.

첫째, 이 악보는 歌曲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순조 때 徐有槎가 편찬한 「유예지」까지는 中大葉의 악보가 실려 있으나, 「우현금보」에는 중대엽 악보가 빠져 있고,

둘째, 얼롱(言弄)·얼락(言樂)·얼편(言編)의 악보는 각각 독립된 곡조로 別立하지 않고, 얼롱은 '弄' 속에, 얼락은 '羽樂', 얼편은 '編'의 일부로 예속시킨 점.

세째, 이 거문고 악보 마지막 장에 당시의 명인·명창의 이름과 출신·전공을 소개한 난에 折衝 朴根成의 이름이 보이고, 「辛酉至月日畢書于牧洞 朴根成」이라 한 '신유'는 철종 12년(1861)에 해당한다.

이상 세가지 이유에 의하여 「우현금보」는 순조와 고종 사이에 편집된 금보임이 거의 확실하다.

「우현금보」는 표제가 없고, 악보 뒤에 「琴家正大 寶比世之無雙」이라 휘호하고 「愚軒琴墅」라는 아호가 써여 있다.

금서(琴墅)의 서(墅)는 '농막(草廬의 뜻) 서'자로 일반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 필자가 「愚軒琴譜」라고 이름한 것이다.

전부 32張으로 25장까지는 가곡 악보이고, 그 다음은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여민락, 군악 악보의 순으로 되어 있다. 「우현금보」의 記譜法은 肉譜를 한자로 표기하고 있다.

「육보」라는 것은 거문고, 가야금, 피리, 젓대 등의 악기의 소리를 흉내내어 입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만든 악보의 일종이다. 즉, 입으로 부르면 口音이라 하고, 악보로 기록된 것은 「육보」라고 한다.

거문고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2째줄을 짚고 술대로 내타는 소리

무명지를 짚고 내는 소리 : 당

식지로 짚고 내는 소리 : 동

모지로 짚고 내는 소리 : 덩(징)

② 3째줄을 짚고 술대로 내타는 소리

장지로 짚고 내는 소리 : 덩

식지로 짚고 내는 소리 : 동

모지로 짚고 내는 소리 : 덩

이것은 기본적인 약속이고, 이밖에도 여러 가지로 약속된 '구음'이 많다. 즉, 술대를 쓰지 않고 손가락으로 뜯거나 줄을 때려 낼 경우에는,

당→라

동→로

덩→리(또는 지)

덩→리

둥→루

둥→르

로 변하고, 또 술대로 안쪽을 향하여 술을 때서 소리를 낼 때는 어느 음이나 '뜰'이라고 구음하고 악보도 그렇게 표기한다.

한글로 된 육보와 한자로 만들어 쓰는 악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당→唐, 동→同, 덩(징)→澄

덩→罍, 둥→甕, 둥→澄(登)

라→羅, 로→路, 리(지)→之

뜰→·

이 금보를 펴낸 사람으로 추정되는 朴根成과 더불어 풍류관을 벌인 다음 1·2·3등까지 입선한 당대의 명인·명창을 소개하여 두기로 한다.

<1등>

僉使 全榮哲 : 琴(거문고) · 簫 · 양금 ·

歌 · 가야금 · 文筆

# 歌曲 중심의 거문고 악보

1861년경 朴根成의 「愚軒琴譜」

張師勛

청주대 예술대학장 · 국악



「愚軒琴譜」 뒷장에 써여 있는 휘호. (낙관은 소장자의 호와 이름임)

이 거문고 악보에는

당시 풍류관에서 입상한

당대의 名人·名唱들의 이름이

실려 있다. 이중 단 한사람이라도

확인하려고

각종 문헌을 뒤졌으나

아직껏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참봉 李學魯 : 금

軍司馬 權吉鎬 : 금 · 문필

嘉善 洪炳俊 : 금 · 가 · 舞

<2등>

出身 朴永輪 : 금 · 장고 · 글씨

출신 安希泰 : 금 · 소 · 글씨

출신 金晁朝 : 양금 · 금

<3등>

折衝 朴根成 : 금 · 소

進士 金貞鎬 : 금

五衛將 金奎喆 : 금

中軍 趙啓樂 : 금 · 가

金鎬恒 : 금 · 적(笛)

李周賢 : 금

金利景 : 금

출신 金基滉 : 해금 · 명창

출신 朴永略 : 장고(명고)

李達華 : 해금

李志祥 : 가

李基洙 : 가(명창)

金貞燦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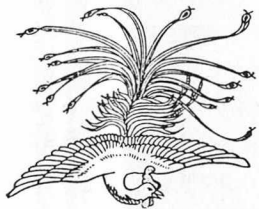
첨사 白允燮 : 명소(名簫)

수문장 張楠翰 : 명장고

韓有成 : 단소

이중 단 한사람이라도 문헌에서 확인하려고 조선 말기의 각종 儀軌 등을 조사하였으나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귀머거리 나무꾼이 들려주는  
옛날 옛날 한옛날 이야기



“大人の 나라  
君子の 나라  
神仙의 나라”

잃어버린 민족의 神話, 민족의 原型을 되찾는다!

한민족太古史 · 설화소설 대동이

# 大東夷



5

- 백두산에 거하며 無爲로 세상 다스린 神人·仙人·眞人들의 이야기 ● 중국 古代 神話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대동족이다.
- 대동이족은 신성족(神聖族)이었으며, 남방 중원에 내려가 政事(政事)를 펼쳐 황토족(黃土族)을 교화(教化)했다.

꼬장꼬장한 선비 박문기가 들려주는  
우리의 뿌리 이야기

귀머거리 나무꾼으로 자치하며 초야에 묻혀 살고 있는 꼬장꼬장한 선비 농초(龔樵) 박문기는 수많은 史書와 經書, 옛 문헌을 섭렵하면서 밝은 눈으로 태고적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와 정신을 발굴하여 잃어버린 民族神話를 복원하였으니 '설화소설 大東夷'는 바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주는 우리의 뿌리 이야기이다.

정신세계사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502호  
☎ 733-3135-7